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개발*

유정이(柳定利)**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구인을 밝히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은 '자녀의 진로발달과 선택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부모 20명을 선별하여 면접조사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136문항을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부모 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위해서 519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하위요인으로 7요인(적극적인 진로 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부정적 정서 경험, 진로 교육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과 32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자아효능감, 부모효능감, 부모역할 수행척도와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본 척도는 현 교육시스템 내에서 부모들의 진로지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교육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타당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 주요어 : 청소년, 진로지도, 진로지도효능감

I. 문제제기

효능감의 개념은 자아효능감에 대한 Bandura(1977)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효능감이란 어떤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32-B00336)

** 안양대학교 교수

정의하며,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원천, 그리고 행동의 방향을 포함한 '지각된 효능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일관성있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개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과제에 따라 변화하는 과제-특수적 신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과제-특수적 효능감을 가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과제에 대한 효능감 척도가 개발되었다.

부모효능감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Gibaud-Wallston, & Wandersman, 1978; 신숙재, 1997).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부모역할에서의 유능감,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자신의 기대, 그리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정서적 불안을 그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높은 부모효능감은 구체적인 부모역할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지적인 환경의 제공, 부모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박현숙, 2003; 안선희, 김선영, 2004). 반면, 낮은 부모효능감은 자녀와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부정적 정서, 강제적인 훈육방식의 사용, 학대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혜승, 2003).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의 질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부모의 자녀지도에 대한 높은 효능감은 긍정적 부모역할의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예언요인이며,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는 자녀지도 행동은 물론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Dawning & D'Andrea, 1994).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양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적절한 대처행동을 시도하며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Jahnson, Mash, 1989),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대하는 등 상황에 따라 보다 융통성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하였다(박은주, 2002, 신숙재, 1997).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었다(Dorsey 등, 1999). 한편 국내에서 우희정과 이숙(1994)은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부모 자신의 효능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런 부모 자신에 대한 기대는 아동의 발달이나 적응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부모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다양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진로발달 및 선택 행동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축적된 연구결과(김지현 외 2007; 진미석, 손유미, 2000; 한상근, 2001)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선호직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이 부모 요인이며, 부모의 영향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ati, Krausz, Osipow(1996)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서 부모와의 갈등을 청소년 진로미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반면, 부모의 지지와 격려, 그리고 도움

행동이 자녀의 진로탐색을 촉진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성취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강화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수리, 2006; 김지현 외, 2007).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청소년 진로발달 연구자나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을 조력하는 진로 상담자들은 '부모의 영향'에 지속적으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 Hargrove, Creagh, Burgess(2002)에 따르면,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세 가지 이론적 주류를 이루었는데, 첫째는, 아들러 이론을 활용한 출생순위와 가족형태에 대한 연구, 둘째, 애착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한 연구, 그리고 가족체계적 접근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에 Sharf (2006)는 부모가 진로선택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Phillips와 동료들의 연구를 네 번째 주류로 꼽았다. 사실상 청소년 진로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 진로발달이론가인 Roe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Sharf, 2006). Roe는 아동의 초기 경험은 주로 가정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행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Roe & Siegelman, 1963). 선호하는 직업군의 선택은 이러한 부모-자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었다.

애착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Blustein, Prezioso, & Schultheiss, 1995; 이희영, 2000)은 아동 초기에 경험한 애착 유형에 따라 청소년기 이후 진로 탐색 및 직업 선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애착과 진로선택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점차 애착 뿐 아니라 심리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정서적 친밀성은 현실적인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특히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O'Brien, 1996).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Roe의 이론에 기초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애착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변인들은 대개 아동 초기 경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영향을 자녀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들이어서 부모의 경험과 내면적 과정을 이해하는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됨에 따라 점차 실제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연구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였다. Young 등의 연구(Young et al., 1997)는 부모-자녀 간의 진로관련 실제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부모가 진로의사결정에 간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Phillips 등(2002)은 이러한 접근을 더욱 확장하여 부모뿐 아니라 형제, 친척, 교사, 친구 등의 다양한 타인들이 청소년 및 성인의 진로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모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행동방식을 분류하였고 그것이 자녀의 진로발달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모의 역할 수행은 부모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깊이 관련된다. 자녀의 진로지도 행동을 유발하는 내재적 동기로 작용하는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은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주도성을 가지고 임하며, 효율적인 부모역할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자발적으로 습득하고, 진로지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며(Jahnson, Mash, 1989), 또 그러한 대처행동을 유지하도록 할 것으로 추론된다.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은 현대사회에서 부모역할수행 및 자녀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감이 결여되기 쉬운 부모에게 요구되는 인지적 특성으로 주목해야 할 구인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 효능감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활과 학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부모의 경험이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근원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진로지도 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의 진로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Dorsey 등, 1999). 또한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이 높다 하더라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으며, 결국 진로지도의 효과 또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점이다.

최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내적 변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부모를 청소년 자녀의 환경 변인으로 보기 보다는 자녀의 진로발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변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부모자신도 청소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목표, 계획,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모의 진로지도 경험 그 자체, 그리고 진로지도에서 부모됨에 대한 부모자신의 개념에 모아지고 있다(Dawning & D'Andrea, 1994; 하정, 2007; 선혜연, 2008). 부모의 자녀진로지도에 관한 경험을 연구한 하정(2007)은 학업우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경험을 분석하고자 심층면접과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자녀의 성취를 위해 자녀의 특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키우면서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감'의 핵심현상을 밝혔다. 연구의 결과 어머니들은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학업지도에 치중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녀의 진로지도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자녀지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 발달과정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Young & Friesen, 1992),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Downing & D'Andrea, 1994)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자녀의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선택에 있어 이러한 부모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모의 내적변인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새로운 주제로 관심을 계속 확장할 필요가 있다(선혜연,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신이 평가하는 자녀진로지도에 대한 효능감의 구인을 탐구하

고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의 구체적인 구인을 확인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다면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지닌 진로지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 예비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녀를 둔 서울·경기지역의 부모 20명을 선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중고등 학생으로 제한하였는데, 진학 및 진로결정의 구체적인 과제를 당면하고 있는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별은 남성 1명, 여성 19명이었으며 연령은 한명(만 38세)을 제외하고 모두 40대였다. 1차 조사를 위해서는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부모 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성 13명, 여성 84명이었고, 연령은 30대가 4명, 40대가 75명, 50대가 16명이었으며, 34명이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차 조사를 위해서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부모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519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차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2차 조사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자(아버지)	92	17.7
	여자(어머니)	427	82.3
연령	30대	59	11.5
	40대	425	81.7
	50대 이상	35	6.8
교육수준	중졸	16	3.1
	고졸	246	47.4
	대졸	219	42.2
	대학원졸	27	5.2

한달가계수입	200만원 이하	102	19.7
	200~400만원	202	38.9
	400~600만원	116	22.4
	600~800만원	54	10.4
	800~1000만원	19	3.7
	1000만원 이상	15	2.9
진로교육 이수여부	진로교육 받음	126	24.3
자녀의 학년	중학생	201	38.4
	고등학생	318	61.6
총표집수		519	100

2. 연구절차

1) 예비문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부모효능감척도의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을 슬하에 두고 있고 진로지도에 관심 있는 부모 20명을 선발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하기에 앞서 10개의 면접문항이 있는 질문지를 미리 숙지하도록 하고 이 문항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문항내용으로는 자녀진로지도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진로지도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 효과적이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진로지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이 포함되었다. 사전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평균 1시간 정도 면접하였으며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모든 면접은 녹음되었으며 모두 전사하였다. 축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연구자 3명이 모여 3차의 회의를 거쳐 천여 개의 개념들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개념들을 카드로 만들어 비슷한 개념들을 통합하고 관련 개념들끼리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10개 범주 136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문항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자아효능감, 부모효능감, 양육효능감, 부모리더십 등의 효능감 관련 이론들과 진로의사결정, 청소년진로발달, 진로관련 부모지지 이론 등의 청소년진로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자신이 자녀진로지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황을 염두하고 3명의 연구자가 협의하고 분류하였으며 상담전공교수 2명의 감수를 받았다. 10개의 범주는 ‘의사소통’, ‘부모의 진로지도에 대한 확신’, ‘부모의 부정적 정서’, ‘부모의 개인적 경험’, ‘진로결정 지원행동’, ‘진학 및 학습지도’, ‘아이에 대한 이해와 격려’, ‘아이의 기본 소양 양성’, ‘아이의 특성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여부’이었다.

2) 1차 조사

위의 문항 선정 절차를 통해 얻어진 136문항을 검사지로 제작하여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의 부모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 97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치 분석을 통해서 지나치게 평균이 높거나 표준편차가 작은 문항들을 제거하였으며 범주별 문항간 신뢰도를 구하여서 신뢰도가 낮은 문항부터 차례대로 배제하였다. 문항 선별과정은 상담전공교수1명의 감수를 통해서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로교육여부’ 범주는 ‘부모의 개인적 경험’ 범주에 흡수되었으며 전체 9범주 54문항을 선정하였다. 한편 선정된 문항들이 실제로 부모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학부모 2명에게 문항의 적합도와 이해도를 평가하게 하여 피드백을 받아 반영하였다.

3) 2차 조사

1차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54문항을 검사지로 제작하여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의 부모 53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519부의 유효한 자료를 얻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신뢰도분석을 위해서 내적일치도 α 를 조사하였고, 최종문항선정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검사와 비교적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모효능감척도와 부모역할수행척도를 함께 실시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준거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아효능감검사를 실시하여 상관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와 의 공존정도를 조사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아효능감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효능감 척도는 Sherer, Mddux, Prentic-Dunn, Jacobs, & Rosers(1983)가 개발한 것을 이지연(2001)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총 27문항이며 리케르트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이면 5점을 부여하고 ‘그렇다’이면 4점, ‘보통이다’ 면 3점, ‘아니다’이면 2점, ‘전혀 아니다’이면 1점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α 는 .895로 나타났다.

2) 부모효능감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척도(PSOC: Parent Sense of Competence)는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것을 신숙재(199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모두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으로서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감을 측정하고 있으며 마지막 차원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측정하고 있다. 리케르트 5단계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α 는 .797로 나타났다.

3) 부모역할수행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의 역할수행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험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측정하기 위해 유은희(1994)가 개발한 척도 중에서 고인순(2001)이 부모역할수행과 관련하여 선정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학습적 지원활동(1-4번), 정서적 지원활동(5-7번), 행동적 지원활동(8-10번)으로 분류 개념화하였다. 리케르트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α 는 .776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문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2차 조사 자료에 대해서 SPSS WIN15.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직각회전법 중 베리맥스(varimax)법을 사용하였다.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면, 본래 요인과의 관계가 큰 변수의 요인계수는 더 커지고, 본래 요인과의 관계가 작은 변수의 요인 계수는 더 작아진다. 그러므로 다른 회전방법에 비해서 각 요인을 해석하기가 쉬우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Tabachnic & Fidell, 1989).

분석결과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이 13개 추출되었으며,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스크리플롯을 살펴본 결과 요인 6~8 근처에서 곡선이 급격히 꺾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13개의 요인부터 3개의 요인까지 해당 요인 개수로 분석했을 때 문항들이 가장 잘 분류되는 요인 수를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54개의 문항을 카드로 만들어 각 요인 개수별로 분류해보고 가장 적당한 요인수를 연구자 3명이 논의하였다. 위 과정을 종합한 결과 7요인으로 분류했을 때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7요인의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먼저 공통분산(communality)이 작은 문항

을(38, 41번 문항) 삭제하였고(.3이 기준), 요인별로 문항들이 잘 묶이지만 해당요인에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이 낮은 문항들을(2, 5, 6, 9, 10, 11, 14, 18, 21, 22, 23, 24, 29, 35, 36, 40, 41, 46, 47, 48, 51번 문항) 삭제하여(.5가 기준) 총 32문항을 얻었다.

그 결과 7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222%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의 설명변량은 13.552%, 11.552%, 9.836%, 6.543%, 6.234%, 6.161%, 5.344%이었다. 문항별 부하량 및 요인별 고유치는 표 2와 같다. 문항제작과정에서 분류한 범주를 근거로 해서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요인 1은 '적극적인 진로 지원', 요인 2는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요인 3은 '부정적 정서 경험', 요인 4는 '진로교육 경험', 요인 5는 '배우자의 관여', 요인 6은 '자녀특성', 요인 7은 '자녀에게 자유크와 책임을 부여'로 명명하였다.

<표 2>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의 문항별 부하량 (N=519)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문항26	.754	.149	.219	.153	.056	.041	.047
문항27	.744	.179	.142	.115	.088	-.033	.145
문항31	.671	-.015	-.018	.084	.071	.121	.150
문항20	.670	.068	.027	.071	.146	.227	.053
문항19	.651	.185	.113	.099	.095	.139	.150
문항25	.637	.074	.170	.321	.107	.025	.130
문항28	.618	.336	.130	.222	.015	-.056	.043
문항30	.608	.168	-.050	.079	.080	.021	.042
문항15	.156	.767	.103	.114	.012	.110	.104
문항17	.066	.764	.059	.042	.138	.157	.050
문항16	.053	.743	.057	.153	.092	.105	.078
문항13	.177	.709	.176	-.009	.071	.072	.154
문항12	.230	.665	.103	.054	.035	.185	.062
문항54	.190	.626	.139	-.009	.090	-.042	.159
문항39	.039	.139	.746	.015	.045	.052	.098
문항37	.024	.063	.704	.000	.030	-.064	.223
문항43	.206	.142	.680	.069	.225	.068	-.093
문항42	.101	.160	.677	-.067	.097	.241	-.039
문항45	.207	.023	.643	.240	.057	-.016	-.173
문항44	-.015	.086	.635	-.038	.093	.174	.168
문항33	.227	.072	.053	.834	.010	-.012	.118
문항34	.300	.088	.114	.789	-.040	.004	.093
문항32	.200	.124	-.060	.619	.179	.098	-.018
문항53	.068	.064	.162	.082	.800	.053	.097

문항52	.149	.153	.166	-.042	.770	.061	.027
문항50	.260	.136	.095	.125	.705	.066	.153
문항 3	.091	.157	.040	.087	.062	.796	.063
문항 1	.068	.141	.136	.041	.025	.794	.016
문항 4	.150	.134	.154	-.052	.077	.568	.177
문항 7	.303	.192	.029	.151	.070	.214	.690
문항49	.268	.138	.144	.020	.168	-.031	.673
문항 8	.105	.358	.051	.083	.074	.187	.630
고유치	4.337	3.697	3.148	2.094	1.995	1.972	1.710
설명변량	13.552	11.552	9.836	6.543	6.234	6.161	5.344
누적변량	13.552	25.104	34.940	41.484	47.717	53.879	59.222
문항 수	8	6	6	3	3	3	3

다음으로 척도의 내용과 신뢰도를 살펴보면, 표 3은 7개의 요인별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각 문항들의 내용과 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항과 총점간의 상관과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 전체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척도의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 α 는 .904 이었으며 각 요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 α 는 차례대로 각각 .868, .852, .804, .744, .744, .680, .693 으로 나타났다.

<표 3> 각 요인별 문항내용과 상관 및 내적합치도 (N=519)

문항 내용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총점 상관	문항제거시 전체신뢰도
요인1: 적극적인 진로 지원 (Cronbach's α = .868)		전체 Cronbach's α = .904		
19. 나는 아이의 진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46	.784	.579	.899
20. 나는 아이를 좋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3.65	.863	.501	.900
25. 나는 진로 정보를 찾아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다.	3.32	.903	.568	.899
26. 나는 아이의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	2.88	.829	.617	.898
27. 나는 아이가 진로를 선택할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3.30	.813	.597	.899
28. 나는 아이에게 진로탐색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11	.832	.567	.899
30. 내 진로를 결정해본 경험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3.37	.839	.416	.902
31. 내 스스로가 높은 진로 포부를 갖고 있다.	3.29	.790	.431	.901
요인2: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Cronbach's α = .852)				
12. 나는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한다.	3.45	.815	.526	.900
13. 나는 아이와의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다.	3.48	.787	.535	.900
15. 나는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65	.763	.537	.900
16.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한다.	3.69	.745	.475	.901
17. 나는 아이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	3.76	.797	.481	.901

54. 나는 아이와 얘기가 잘 통한다.	3.48	.755	.468	.901
요인3: 부정적 정서 경험 (Cronbach's $\alpha = .804$)				
37. 아이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	2.94	.929	.338	.903
39. 내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할까봐 불안하다.	3.02	.935	.405	.902
42. 나는 아이의 진로를 잘못 지도한 것이 후회스럽다.	3.40	.910	.429	.901
43. 나는 아이에게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미안하다.	3.13	.962	.493	.900
44. 주변에서 말하는 아이의 모습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혼란스럽다.	3.26	.931	.356	.903
45. 내게는 아이의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	2.81	.861	.377	.902
요인4: 진로교육 경험 (Cronbach's $\alpha = .744$)				
32. 내 주변에는 부모역할을 배울 모델이 있다	3.32	.825	.338	.903
33. 나는 진로교육을 받고나서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2.89	.856	.387	.902
34. 나는 진로교육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였다.	2.92	.838	.433	.901
요인5: 배우자의 관여 (Cronbach's $\alpha = .744$)				
50. 나는 아이 진로에 대해서 배우자와 자주 의논한다.	3.44	.868	.488	.900
52. 나는 아이 진로에 대해서 배우자와 대화가 안 통한다.	3.58	.907	.406	.902
53. 나의 배우자는 아이의 진로지도에 관심이 없다.	3.91	.880	.374	.902
요인6: 자녀특성의 인식 (Cronbach's $\alpha = .680$)				
1. 나의 아이는 끈기와 집중력이 부족하다.	2.98	.944	.345	.903
3. 나의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3.06	.951	.360	.903
4. 나의 아이는 매사에 자신감이 있다.	3.31	.856	.370	.902
요인7: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 (Cronbach's $\alpha = .693$)				
7. 나는 아이에게 자기관리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지도한다.	3.60	.765	.515	.900
8. 나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지도한다.	3.71	.723	.455	.901
49. 나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	3.57	.742	.446	.901

다음으로 Amos7.0을 사용하여 본 척도에 대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7요인 32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는 표4에 제시하였다.

<표 4>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 적합도 지수

χ^2	df	CMIN/DF	GFI	NNFI	CFI	RMSEA
960.410***	444	2.163	.897	.904	.915	.047

*** $p < .001$

절대적합지수에 속하는 χ^2 , CMIN/DF, GFI를 살펴보면, 먼저 χ^2 값이 커서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나 χ^2 는 표본크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증가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른 적합지수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배병렬, 2009). CMIN/DF는 2~3정도이면 양호하고 GFI는 .9 이상이면 우수하다고 여겨지므로 본 척도는 절대적합지수를 만족시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증분적합지수를 살펴보면 NNFI, CFI 모두 .9를 넘어서 본 척도의 적합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χ^2 는 표본크기가 크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적합지수 RMSE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teiger(1990)는 RMSEA가 .10 이하이면 자료를 잘 적합시키고 .05이하이면 매우 잘 적합시킨다고 하였으므로 본 척도는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우수하며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최종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척도와 부모효능감척도 및 부모역할수행척도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척도가 일종의 효능감척도이므로 본 척도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자아효능감척도를 바탕으로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는 부모효능감척도 및 부모역할수행척도와 각각 .746, .657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본 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으며, 또한 자아효능감척도와의 상관계수가 .555로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본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수용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5>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 척도와 관련 척도 간의 상관계수

	진로지도효능감	부모효능감	부모역할수행	자아효능감
진로지도효능감	1			
부모효능감	.746**	1		
부모역할수행	.657**	.489**	1	
자아효능감	.555**	.588**	.351**	1

** $p < .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부모 20명을 선발하여 면접조사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위한 136문항을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생 부모 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조사를 위해서 519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7요인(적극적인 진로 지원, 자녀에 대한 수용과 격려, 부정적 정서 경험, 진로교육 경험, 배우자의 관여, 자녀특성의 인식,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과 32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내적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준거관련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자아효능감, 부모효능감, 부모역할 수행척도와와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작된 청소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효능감 척도는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먼저 요인구조를 중심으로 타당도를 살펴보면,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문항들은 .834~.568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문항 4만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들이 .60을 넘는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변량의 59.222%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하위요인들은 8~3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1의 고유치는 4.337로서 전체변량의 13.552%를 설명하고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인2의 고유치는 3.697이고 전체변량의 11.552%를 설명하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3의 고유치는 3.148이고 전체변량의 9.836%를 설명하고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요인들도 모두 5~6% 이상의 설명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적절한 변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수의 분포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을 살펴보면 요인별 내적합치도가 .868~.680로서 요인별 문항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요인들은 하나의 차원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α 계수가 크다고 검사의 차원이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가 하나로 나타나면 α 계수는 검사가 하나의 차원을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성분 분석 결과만으로는 그 특성상 요인이 하나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데, 이 경우 α 계수는 검사의 차원이 하나라는 결론을 검증하는 확인적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탁진국, 2007; Cortina, 199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한 문항이 얼마나 적절하게 7요인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여러 적합도 지수들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즉, 32문항은 간명하고 적합하게 7요인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안정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문항들 간의 내적합치도도 우수하며 각각의 요인들은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을 타당하게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인1은 부모가 자녀에게 진로정보를 찾아주거나,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극적인 진학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등의 적극적인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높은 진로지도 효능감을 경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Young과 Friesen(1992)가 제시한 10가지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는 요인으로서 국내의 교육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입시위주의 교육이 지배적인 국내 교육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

로 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진로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인 2는 부모가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믿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진로지도 효능감을 경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부모의 모성애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선혜연(2007) 연구의 '격려와 지지'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높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많은 학생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이해하고 수용할 수 밖에 없음을 많은 부모들이 인터뷰과정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이 점은 자녀의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부모의 불안, 걱정, 후회, 혼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진로지도 효능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Wandersman(1978)의 부모효능감척도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불안의 주요 원인은 문항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자신의 진로지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알지 못하는 것, 즉 진로지도에 있어 무지(無知)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인 4는 '진로교육의 경험'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진로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효능감이 높아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를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5는 '배우자의 관여'로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요인인데, 자녀를 잘 진로지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양쪽 모두가 진로지도에 관심을 갖고 서로 자주 대화하며 양육방식에 있어 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요인 6은 '자녀특성'으로서 자녀들이 집중력이 좋고 자신감 있게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내가 진로지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었지만 오늘날의 교육현실에서는 특히 자녀의 수행능력이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에 더욱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인 7은 '자녀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인데 Young과 Friesen(1992)의 '독립적인사고와 활동 증진시키기' 요인이나 선혜연(2007)의 '신뢰와 위임' 요인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요인은 자녀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7번째 요인으로 나타난 점은 자녀의 독립과 책임에 대한 관심이 서구와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성적으로는 자녀의 독립과 책임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자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수행력이 떨어지더라도 좀 더 끈기 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텐데 그것을 참고 못하고 개입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독립과 자발성이 더디어질 수 있다. 위 결과는 지나친 경쟁위주의 사회속에서 생활하다보니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일투족 관여하기 쉽지만, '자녀가 독립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이 내가 부모로서 잘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검사가 다른 유관 척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

를 실시한 결과 부모효능감척도와 .746, 부모역할수행척도와 .657의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과 부모역할수행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본 검사의 수렴타당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척도와의 준거타당도를 살펴보면 .555의 상관을 보였는데 부모의 진로지도 효능감이 높을수록 높은 자아효능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검사의 준거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에 있어서 효능감의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밝혔다. 우선 부모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의 진로를 지원하고 있을 때 진로지도에 있어 효능감을 느낀다. 또한 자녀를 잘 돌보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효능감을 느낀다. 하지만 진로지도에 있어 혼란과 후회, 불안은 효능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진로 교육을 받으면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인 1, 2, 3, 4는 부모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면 요인 5, 6은 타인과 관련되어 있다. 즉 부모들은 아이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효능감이 증가하며, 배우자가 관심을 가지고 진로에 참여할 때도 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가 궁극적으로 독립과 자율을 성취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진로지도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발견은 검사실시 및 해석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고 어느 요인이 높고 낮은지 경중을 비교할 수 있어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교사들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 유용하게 참조할 수 있다. 둘째, 본 척도는 부모효능감척도와 유사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즉 기존의 부모효능감 척도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만을 다루고 있어서 진로지도에 있어서 부모들이 느끼는 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외국의 척도를 번안한 것이므로 국내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본 척도는 현 교육시스템 내에서 부모들의 진로지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국내의 교육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부모들의 진로지도 효능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평가하는 것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 지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으므로 농촌이나 산간 지역 학부모들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문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화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을 인터뷰하기는 했지만 여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표집된 학부모의 과반수 이상이 어머니였고 따라서 본 척도의 문항들도 어머니 입장을 반영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입장에서 효능감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진로지도의 현실상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많이 관여하고 노력하므로 어머니의 특성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본 연구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비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청소년기에 속하는 나이지만 그들이 처한 발달적·사회적 환경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진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으므로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여(가령 고3 학부모) 효능감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이다. 셋째, 본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를 사용하였는데 변별타당도까지 함께 실시하였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아 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효능감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유관 척도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변별타당도를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 고인순(2001). 고3 수험생 어머니의 스트레스 인지 및 대처행동과 심리적 복지.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수리, 이재창(2007). 부모 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2), 393-407.
- 김지현, 김계현, 유정이, 황매향, 노경란 (2007). 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박현숙(200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배병렬(2009). Amos17.0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선혜연(2008). 청소년기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의 관여 방식.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선혜연(2009).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서울: 한국학술정보.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1.
- 유은희(1994). 대입수험생의 학업성취와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족학연구회, 자녀교육열과 대학입시, 서울: 하우.
- 이지연(2001). 시설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승(2003).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역할 수행과의 관계: 재미동포 한인 1세대 부모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4(3), 57-72.
- 이희영 (2000).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 진로발달. 부산교육학연구, 13(1), 1-19.
- 김미석, 손유미 (2000).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보윤, 공윤정(2009). 부모의 성취압력 및 진로지도가 아동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8(1), 67-78.
- 탁진국(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하정(2007), 학업우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진로지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직업

- 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135-158.
- 한상근 (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lustein, D. L., Prezioso, M. S., & Schultheiss, D. E. (1995). Attachment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3, 416-432.
- Cortina, J. M. (1993). What is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297-334.
- Dawning, J. & D'Andrea, L. M.(1994).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1, 115-126.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the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 Hargrove, B. K., Creagh, M. G., & Burgess, B. L. (2002).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 predictors of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85-201.
- O'Brien, K. M. (1996).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o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8, 257-274.
- Phillips, S. D., Jome, L. M., Stramenga, M. S., Merrigan, B. A., Page, J. C., Tully, A. W., Gorat, M., Koehler, J., & Mowry, M. (2002).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cision making.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vention, August 2002, Chicago, IL.
- Roe, A., & Siegelman, M. (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 355-369.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Belmont, CA: Brooks/Cole.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 (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80.
- Tabachnic,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 & Row.
- Young, R. A.,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198-207.

* 논문접수 2009년 10월 19일 / 1차 심사 2009년 11월 10일 / 2차 심사 2009년 12월 3일 / 게재승인 2009년 12월 11일

* 유정이: 안양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한국학교상담사 연구”, “상담심리학의 거장(역)” 등이 있다.

* e-mail: jiryu@anyang.ac.k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Efficacy of Career Guidance for Youth Scale

Ryu Jeong Y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arent-*efficacy* of career guidance for youth scale. To measure parent-*efficacy* of career guidance for youth, in the process, 20 parents were interviewed and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sed to extract basic items. 54 items were selected and modified from 136 items sampled from literatures and the interview data. This was done through psychologists and statistician's judgement along with interview and cognitive tests for 2 parents for content validity.

Item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32 items loaded high on 7 factors confirming the scales construct validity. These 7 factors of the parenting self-*efficacy* of career guidance were : active support on career development(8 items), acceptance and encouragement(6 items), negative experience(6 items), career education experience(3 items), gaining spouse's support(3 items), awareness of children's character(3 items), teaching children self-regulation and accountability(3 items).

The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se sub-scales.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self-*efficacy* scale, the parents self-*efficacy* scale, and the performance of parenting scale, were examined to provided an evidence of criterion -related validity of the scale. the results lend a support to the parent-*efficacy* of career guidance scale as a valid instrument.

Key words: parent-*efficacy*, the parent-*efficacy* of career guidance scale, scale construction, scale validation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unseling, Graduate School in Anyang University